

구례군청 김시우, 매화급 '女장사 꽃가마'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대회 1위...올들어 벌써 4관왕 차지 이세미·엄하진, 국화급 2·3위...안방서 좋은 경기 펼쳐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김시우가 안방에서 꽃가마에 탑승했다.

구례군청 김시우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구례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매화급 1위를 차지하며 통산 세 번째 장사에 등극했다.

지난 23일 여자부 전문 매화급 4강 경기에서 영등배지기와 뿌리기로 최다혜(교산군청)에 2-0승을 거둔 김시우는 24일 치러진 결정전에서 양윤서(영동군청)를 첫 판 잡채기, 두 번째 판 원배지기로 압승하며 당당히 매화장사에 올랐다.

김시우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장흥 대령경기, 고산 유기농배, 삼척 대회에 이어 올해만 4관왕을 차지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이 대회 매화급 결정전에서 안산시청 김은별에 2-1로 승리하며 생애 첫 장사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 이어 홈그라운드 2번째 우승이다. 올해 경기 치르기 전 매번 감기에 걸려서 긴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방 대회인 탓인지 잠도 잘자고 컨디션도 좋았다"며 "올해 4관왕에 오르며 스스로

점차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1위는 몇 차례 해왔지만 '황소 트로피'를 받지 못했다. 부모님께서 농담 식으로 '황소 언제 가져오냐'고 기다리셔서 지난 삼척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가 너무 값졌다. 잠시 재정비해서 9월 고성에서 치르는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도 한 마리 데려가려고 한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국화급 경기에서도 반달곰씨름단의 활약이 이어졌다.

구례군청의 이세미와 엄하진이 국화급 경기에서 각각 2, 3위에 올랐다.

이세미는 한 식구 엄하진과의 4강에서 앞무릎치기로 첫 판에서 제압당했지만 이어 잡채기와 영등배지기로 2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그는 국화장사 결정전에서 만난 이재하(안산시청)에게 뒤집기와 뿌리기로 0-2패를 기록하며 준우승했다.

이세미는 "같은 팀 소속인 하진언니와 결승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텐데 대신언니 아쉽다. 경기 후

에 언니가 '내가 장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더라"며 "개인적으로 국화 장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 2위에 올라 기쁘지만 다음 경기에는 장사 타이틀을 얻고 싶다"고 밝혔다.

이세미에 1-2패를 당하고 박민지(영동군청)와 공동 3위에 오른 엄하진은 2번의 예선에서 승리한 후 4강 경기를 치렀다.

그는 "같은 팀이자 파트너인 이세미와 경기를 치르게 돼 좋았다. 이세미가 장사를 할 만한 기량이라 생각했고, 세미에게 패해 마음이 편했다"며 "지난해 9월 부상을 입고 이번이 복귀 후 세 번째 경기였다. 이전보다 나아진 성적만 내지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3위에 오르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진행된 이번 대회 여자 천하장사 결정전에서는 김시우와 최희화(구례군청)가 16강에서 김주연(화성시청)·김은별(안산시청)에 패하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김승환 구례반달곰씨름단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체급전에서 강한 집중력으로 좋은 경기를 펼쳐준 반면, 천하장사 경기는 부담감이 많아서인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다"라며 "선수들 본인이 가장 아쉬울 것이다.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 항상 고맙고 기쁘지 말고 다시 잘 준비했으면 한다"고 응원을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구례군청 김시우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구례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매화급 1위를 차지하며 통산 세 번째 장사에 등극했다. <구례씨름협회 제공>

패럴림픽 성화 봉송 시작...영국 거쳐 프랑스 전역 밝힌다

2024 파리 패럴림픽 성화가 '패럴림픽의 발상지' 영국 스톡맨더빌에서 재화됐다.

올림픽대기는 24일 (이하 현지시간) '패럴림픽이 태동한 스톡맨더빌에서 열린 레인스퍼드와 그레고리 이완(이상 영국)이 파리 패럴림픽 성화를 재화하고, 성화 봉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독일의 신장학자 루트비히 구트만은 1948년 영국 런던 북서쪽에 있는 에일즈베리시 스톡맨더빌에서 '전경 중 다친 참전 용사'를 위해 스포츠 행사를 열었다.

패럴림픽은 1960년 로마에서 1회 대회를 열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48년 스톡맨더빌에서 열린 대회를 '패럴림픽의 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

장은 성화 재화식에서 "구트만은 스톡맨더빌에서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와 사회 운동을 창안했다"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장애인 삶을 향상 시킨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토니 에스탕게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장은 "오늘 피어오른 불꽃에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가 담겼다"며 "우리는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패럴림픽을 만들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화식의 주인공은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조정 금메달리스트 레인스퍼드와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 컬링 동메달리스트 이완이었다.

레인스퍼드와 이완은 "패럴림픽의 요람에서 성화를 재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해 영광"이라고 기뻐했다.

둘은 성화 재화 뒤 첫 봉송을 시작했다.

레인스퍼드와 이완을 포함한 24명은 25일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채널 터널을 통해 성화를 봉송했다. 이후 성화 봉송단은 12개 그룹으로 나눠 프랑스 전역을 나흘 동안 돈다.

올림픽 대기는 약 1200명의 성화 주자가 프랑스 전역을 돌며 패럴림픽 개막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파리 패럴림픽은 28일에 개회식을 연다.

AP통신은 "프랑스의 주요 유적지를 밝힌 성화는 개회식 당일에도 하나로 다시 뭉친다. 파리 중심의 킬리리 정원에 설치한 '열기구 성화대'는 패럴림픽이 열리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대회 기간 일몰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60m 높이로 떠올라 파리 시내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화순군청 복싱, 전국무대 호령



제54회 대통령배전국사도복싱대회에서 활약한 화순군청 박진원(왼쪽부터), 선현욱, 서동근, 박초롱, 박수인, 박구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체육회 제공>

대통령배서 메달 5개 수확 중·고선수단도 7개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영웅' 임애지의 활약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화순군청 복싱부가 이번에는 전국무대에서 이름을 알렸다.

화순군청은 최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끝난 제54회 대통령배전국사도복싱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서동근(-57kg)은 이번 대회에서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가벼운 몸놀림과 간결한 주먹을 앞세운 서동근은 결승에서 만난 박수열(인천시청)에 2라운드 기권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걸었다.

박초롱은 여자부 -50kg급 은메달을 얻었다.

박초롱은 준결승에서 '우승후보' 강도연(보령시

청)를 제압했지만 이다원(원주시청)과 결승전에서 2-3 판정패를 당해 은메달을 기록했다.

박수인(-67kg), 박진원(-71kg), 선현욱(-80kg)은 남자부 동메달을 더했다.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복싱 강도(強道)'의 면모를 보여줬다.

화순군청팀의 활약에 앞서 전남 복싱 꿈나무들도 이번 대회에서 활약을 펼쳤다.

화순중 추도윤이 남중부 -80kg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남 중·고선수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유성수 전남복싱협회장은 "임애지를 중심으로 한 화순군청 복싱부로 전남 복싱이 활력이 넘친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다수 입상이 기대된다. 전남 복싱의 발전과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세계 1위 시비온테크,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출전

9월 14일 개막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 1위 이가 시비온테크(폴란드·사진)가 9월 한국 팬들과 만난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오픈 대회본부는 25일 올해 대회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WTA 250 대회로 열린 코리아오픈은 올해 WTA 500으로 승격됐으며 총상금 규모도 100만 달러(약 13억2000만원)로 늘었다.

올해 대회에는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가 3명 출전하는 등 2004년 1회 대회 이후 가장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시비온테크는 프랑스오픈에서 올해까지 3연패한 것을 포함해 메이저 대회 단식 통산 5차례 우승 경력이 있는 톱 랭커다.

27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오픈에서도 '우승 후보 1순위'로 지목된다.

2004년 창설된 코리아오픈에서 현역 단식 세계 1위가 출전하는 것은 올해 시비온테크가 처음이다.

시비온테크 외에도 2022년 Wimbledon 우승자 엘레



나 리바키나(4위·카자흐스탄), 지난해 이 대회 챔피언 제시카 페굴라(6위·미국)가 올해 코리아오픈에 나온다.

이 대회 역대 우승자로는 2014년 챔피언이자 전 세계 랭킹 1위 카롤리나 플리스크바(41위), 2019년 우승자 카롤리나 무호바(52위·이상 체코)가 출전한다.

올해 코리아오픈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4일 예선 경기로 막을 올리고, 본선은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자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